

참으로 복음이 체질이 된 사람들 -복음으로 여는 텃가-

룻기 1:15-18, 빌립보서 2:1-11

정운돈 목사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는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 중에는 기분나빠하는 분들이 많다. 오직 예수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런 의미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른 종교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있으면, 종교 없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왜 오직 예수인가? 다른 종교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원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인 것이다. 중국에 가 보면 다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모두 다 귀신과 우상, 사단을 섬긴다. 모든 종교가 그렇다. 어떤 종교도, 어떤 훌륭한 분도 우상,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책은 없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귀신이 오라고 문을 열어놓는다. 강남의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세종대왕 가문의 몇 대 손이라고 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고 물으니, 제사를 그렇게 지냈는데도 정신병자, 사고, 문제들을 많이 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소원이 '저런 문제가 나에게서 안 왔으면 좋겠다. 내게 안 오니 참 감사하다.' 했었는데 나중에 학교 교사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도 정신문제가 오고 자녀들도 정신문제가 오는 것이다. 계속 우상삼기고 제사를 지내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것이다. 지난해주에도 중국에 가서 신학생 35명을 만났다. 그 학생들의 가계도를 다 조사했다.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들었다. 정말로 치 참하더라. 하나님 떠난 상태의 가문이 이혼, 중독, 실종, 살인, 정신병이 너무 많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적,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어떤 성인 군자도 우리의 죄 문제를 단 한 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가지고 존귀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목상할 룻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체질로 바뀌어 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룻기에 나온 세 인물처럼 살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 이 세 인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이 세 인물들처럼 변화되어 가게 될 것이다. 오늘 룻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서론 : 룻기의 내용과 배경 이해

(1) 먼저 앞 부분에서는 룻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사사시대 초반부에 유다 베들레헬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 슬하에는 딸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살고 있었다. 당시 유대 땅에서 흉년이 들자, 이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할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거기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버지 엘리멜렉도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아들 딸론과 기론도 10년이 못 되어 죽고 말았다. 딸론이라는 이름이 병약하다는 뜻인데, 병으로 인해 일찍 죽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나오미는 베들레헬에 흉년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다. 엘리멜렉의 고향이 베들레헬이었는데, 애초에 이들은 그 고향을 버리고 이곳으로 온 것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먹은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두 젊은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그런데 이중 한 며느리인 룻은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베들레헬으로 함께 동행하게 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룻기 1:16-18의 내용이다. 며느리들이 이 절로 나오면 고민한다. '나도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고민한다. '나도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은혜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다. 베들레헬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보아스라는 인자하고 복음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이 룻기의 내용이다.

(2) 우리가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기생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한지 얼마 안 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룻기는 어떻게 보면 두 여인과 한 남자의 짧은 이야기이다. 이런 룻기의 배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이 배경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깐 바로 그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3) 룻기의 이 짧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지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우리들이 만일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과 같이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러한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룻은 다문화 이민 여성인 모압 여성이었다.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고, 결국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되는 축복된 여인이 된 것이다.

본론 :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세지

그렇다면, 룻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1.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은,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1) 언약의 땅 베들레헬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지만, 이름만 그랬지, 엘리멜렉은 그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았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쉽게 이사해 버린 것이다. 그가 부자였던 근거는 룻기 1:21이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베들레헬으로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고 '나오미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이다. 나오미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다. 룻기 1:21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베들레헬 땅, 이스라엘 땅, 그 언약의 땅은, 비록 흉년은 입었지만 먹을 것이 많았다. 언약의 땅을 버리고 갈 만한 입장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너무 좋았다. 눈치가 빨랐다. 그 땅을 버리고, 돈 따라, 사업 따라, 일 따라 가는 것이다. 저기로 가면 더 잘 될 거니까.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멀어지는 것이다.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아주 가난한 것이 아니었지만, 엘리멜렉은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외국으로 이사했던 것이다.

(2) 그러면 모압 땅은 어떤 땅인가? 굉장히 티락한 땅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음탕하게 만들고, 티락하도록 만든 족속이 모압 민족이었다. 애굽 못지 않게 우상을 섬기며 티락에 빠져 있던 현상이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헬이라는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너무 바른 판단처럼 보인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30년 생활 후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40년 광야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정복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쉽게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해 버렸던 것이다.

(3) 그 이유는, 사업과 일을 제1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1순위로 달랐을 뿐이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가? 돈이 없는가? 바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가? 그게 없는 게 아니다. 1순위가 틀린 것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와 믿음과 진도와 선교를 제1순위로 생각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엘리멜렉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순위를 바꾸라' 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잘 하는 자녀보다 실수하는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계속 그 길로만 가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불효자가 아니겠는가. 깨닫기만 해도 거듭나게 될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언약하고 흔들리는 성도에게 교역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 교역자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면, 제자인 줄 아시면 된다.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내가 문제인가 하고 생각해 보라. 양육해서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혹시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

2. 언약의 사람을 따라가라.

두 번째로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언약의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 룻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나오미를 따라갔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신의 친척과 이전에 섬겼던 종교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나는 이번에 목상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룻이 고집이 섰을까, 오르바가 고집이 섰을까? 오르바가 훨씬 착했다. "너희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하니까, "네 어머니." 하고 갔지 않나.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1) 고집은 룻이 훨씬 섰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 어떤 분은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아무 것도 아닌 데에는 굽힐 수 있어야 한다.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한다. 오늘 룻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했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머지는 다 포기했다. 그러나 오르바는 착하기만 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지 몰랐다. 어떤 사람은 고집만 세다. 오로지 고집으로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착하기만 하다.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다. 중요한 것 1순위로 붙잡고 나머지는 다 주께 맡기고 양보하시기 바란다.

(2) 오르바는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다. 룻기 1:15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다. 환경이 변화되면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원래대로 가 버린다. 그러나 루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이 남편과 결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르바는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후대 중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더 견고히 믿음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는,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후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환경과 관계없이 1순위를 예배로, 믿음으로 붙잡기를 축원한다. 거리가 멀다 가깝다가 아니다. 호주에 있는 우리 램프는 멀리 있어도 항상 참사료교회에 중심이 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흐름을 잘 탈 수 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거리와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은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왜 킷기에 나오겠는가? 결국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닌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킷기에 나오는 복음적인 세 사람의 배려와 희생의 삶이다.

(1) 나오미, 룻, 보이스, 이 세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하도록 목상했더니 나온 것이 배려였고, 또 희생이었다. 목숨을 던지는 희생이었다. 배려는 무엇인가? 안 해 줘도 된다. 친절하게 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이다. 나오미를 보면, 남편 잃은 며느리를 데리고 그냥 살아도 된다. 그런데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된다. 손해 볼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셨다. 그게 은혜였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은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겠다.

①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을 이해하는 복음적인 시어머니였다. 이들을 떠나보내면 늙고 병든 나오미는 노후 대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부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나오미는 이삭을 주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정말 나오미가 건강했으면 밭에 나가서 같이 주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없으면 떨어진 이삭도 주을 수 없는 건강 상태였던 것이다.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없다. 며느리 없으면 살아가지도 힘들었다. 그런데 이들을 떠나보내려고 했다. 생명 걸고 배려를 한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진다.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베들레헴으로 나왔을 때는 끝까지 며느리의 길을 열어주려는 심정으로 보이스에게 가까이 가게 했다. 당시 법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부터 그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보이스는 먼 친척이었지만, 가까운 친척보다는 보이스가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룻을 통해 그 의향을 보여준 것이다. ‘아, 나오미는 내가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보이스는 이것을 깨닫고 절차를 밟는다. “오늘부터 쉬지 않으리라.” 그 길을 열기 위해서였다.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② 룻의 배려와 희생이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된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한 착한 며느리가 룻이었다. 사람을 보면 타고난 천성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 그게 예비된 자, 사명자, 충성된 자다. 그런데 룻은 찬성만 착할 뿐 아니라, 복음을 잘 이해한 여인이었고, 또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이삭을 줌과 어머니를 봉양했다. 마음만 착한 게 아니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성심성껏 했던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자신의 선택을 따라 남성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언약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나이 젊으니까 잘 생기고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룻은 나이 많은 보이스를 따라갔다. 결혼을 할 때, 기도하면서 부모님이나 목회자에게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③ 보이스의 배려와 희생이다. 보이스는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룻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도록 배려했다. 또 나오미의 의도를 알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한 여자가 이부자리 밑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하시겠는가? 엉큼한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길을 걷고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2) 왜 우리는 이런 배려와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불신앙과 죄와 사단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배려하시지 않았다

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대속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보이스는 희생을 했다. 어찌면 어머니 라합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 어머니도 부양해야 했을 수도 있다. 자기 할 일도 많았을 것이다. 저 늙은 할머니와 저 과부 여인을 왜 거두어 들여야 하겠는가. 부양의무를 가진 다른 더 가까운 친척도 있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들은 그 의무를 지지 않았다. 희생이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보이스의 희생 때문에 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배려와 희생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배려와 희생의 삶에 도전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친구들을 권유하여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12명이 동아리를 시작해서 주변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다. 그 중 차동제라는 친구의 교회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굉장히 무서웠다. 얼굴에 상처가 크게 있는 분이였다. 혹시 강제 출신이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전도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아마 동제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내가 이야기를 해 줄게.” 이 전도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반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다. “야, 기도하지 마!” 그래도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교탁 아래에 망치가 있었다고 한다.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기도해!” 화를 내면서 망치를 던졌는데, 위협하려고 한 것이 그만 얼굴에 맞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큰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선생님께 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우리 때만 해도 조금만 잘못 하면 퇴학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만약 선생님이 알게 되면 망치를 던진 친구가 여지없이 퇴학 당할 테니까, 그것을 알고 배려를 한 것이다. “그냥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야, 우리가 그냥 밥 먹지 말고, 저 친구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 반 아이들이 다같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친구를 전도했다고 한다. 우리는 별 문제도 없는데 왕따시키고, 잘못도 안 했는데 고자질을 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전도사님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구나.’ 동제라는 친구도 평택에서 몇 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다. 그런 전도사님 밑에 그런 제자가 나온 것이다. 나는 중요할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 그 전도사님이 그러셨지. 양보해야지. 참아야지. 오히려 감사해야지.’

4. 다문화 선교가 중요하다.

또한 킷기는 다문화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1) 보이스의 어머니 라합은 다문화 여인이었지만 가난한 정복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2) 킷기에 나오는 룻 또한 모압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지막 부탁과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결론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를 주신 이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룻기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룻기를 주셨겠는가?

(1)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언약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언약 따라, 복음 따라, 말씀 따라 가야 되겠다.

(2)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인생의 목표를 베들레헴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3) 룻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음이 체질화된 세 사람의 모습처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와 희생의 삶은 우리의 인격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분, 야구 선수는 10번 중에서 세 번만 안타를 쳐도 훌륭한 선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 번 중에서 세 번만 성공해도 여러분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열 번 중 네 번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룻기는 4장 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많은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체질화되어, 가정과 교회와 모든 다민족과 237개국을 살리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일곱 램프와 킷기에 나오는 복음 체질화된 세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체질과 인생의 목표가 복음화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